

1880년대 일본인의 '호남 여행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발간
산천 모양·촌락 위치 등 기록
당시 광주·전남 생활상 가늠
오늘 광주교육청서 책자 기증식



광주 고지도 - 광여도

“대곡촌(大谷村)의 경계를 경유하여 2백 미터 정도 가면 오른쪽 들판 중턱의 골짜기를 건너서 용호동(龍虎洞)이 나오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꽤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에서 1킬로미터 남짓 더 나아가면 평교촌(坪橋村)에 이른다. 호구는 20 남짓이다. 그곳은 북쪽으로 작은 들판이 가로 놓여 있는 평범한 골짜기이다. 아록(野鵲)에서 눈발을 일구는데, 토양은 대체로 기름지다. 일반 주민의 생계는 매우 좋다고 하는데, 가옥의 구성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위 내용은 일본인 마스다 고조가 1880년대 말 광주를 여행하고 쓴 기록이다. 마스다 고조는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부산상법회의소(오늘날 상공회의소) 서기로 근무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전부다.

1880년대 말 일본인 마스다 고조의 여행기가 한권의 책으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일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행기록물 '호남여행기'를 편찬했다. 책은 광주지역의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재단은 일본어와 한문으로 작성된 자료는 번역을 하고 해설과 원문을 추가했다. 또한 한글로 작성된 자료도 현대문으로 수정하고 해설을 추가해 수록했으며 해제는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가 맡았다.

마스다 고조의 여행기는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인식과는 변별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그는 조선인에 대한 '벌사'나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다.

마스다 고조는 여행기 첫 머리에서 “이 책은 기사의 문체(文體)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실지(實地) 산천(山川)의 모양과 촌락(村落)의 위치(位置), 체제(體裁) 등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통상(通商)의 일을 맡은 사람의 길잡이로 쓸 수 있게 하여 행상(行商)을 하려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조선의) 내지(內地) 촌락의 체제라든가 상업 활동의 실태 등을 알려주는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으니, 문체의 절렬함을 나무라지 않으려 하겠다”고 언급한다.

책에는 광주를 비롯해 장평현, 남평현, 나주, 무안현, 영암군, 해남현, 진도군, 강진현, 장흥부, 보성군, 낙안군, 순천부, 광양현, 구례현이 등장한다. 전라북도인 운봉현, 남원부, 임실현, 전주 등에 관한 기록도 나와 있다.

특히 당시 광주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나와 있어 당대의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사람들의 기질을 “온순하고 부드러운데 순박하고 솔직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파종시기는 3월 15일 무렵이며 경운법은 소 쟁기질 3회, 모내기 앞두고 가래로 고르기를 한다고 돼 있다. 모내는 시기는 4월 말이며 늦은벼는 5월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연료법, 산림벌채법도 자세히 나와 있다. 당시 연료 가격은 뽕나무 1짐 50문, 숯 1짐 260문으로 돼 있다. 산림은 자유롭게 벌채를 하지만 장평, 남평, 광주 사이에 있는 무등산은 관유(官有)라서 따로 산번(山番)을 두고 공급하는데 술가지와 잡초를 베어내고 벌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밖에 책에는 1880년대 말 호남 지역의 산천, 촌락, 체제, 거리와 인구, 농업과 상업의 실태, 생

활수준과 옷차림 등이 기술돼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기질과 지역의 성향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호남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덕진 이사장은 “기존의 여행기가 설화나 명문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이 책은 호남지역의 지형 지리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농촌의 생산인구 구성과 생산물의 분포·유통·가격 등을 다루고 있어 당시 호남의 경제구조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함께 ‘호남여행기’ 책자 기증식을 갖고 각 초·중·고에 우선 비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도서관과 문화해설사, 문화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파 녹이는 피아노 선율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 '조사무엘 독주회' 오늘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사무엘(사진)의 독주회가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UNK뮤직이 주최하고 연세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독일 빈스타국립음대 동문회가 후원한다.

고등학교 시절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한 조

사무엘은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수석 입학 및 졸업했으며 이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했다. 이후로도 오스트리아 비엔날 콩쿠르 준우승, 광주 국제 콩쿨 특별상 등을 수상하고 금호영재로 선정돼 리사이틀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각종 초청연주와 함께 광주예술중학교



전석 2만 원이며 학생은 50% 할인된다. 문의 010-7358-0927.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내년 지원사업 통합 공모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사업설명회...내년 1월 9~19일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광년)은 '202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외 2개 사업 공모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재단은 2021년부터 예술인 공청회와 2022년도 공모제도 개설 라운드 테이블,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를 감안해 집중지원 사업은 정액지원제가 아닌 예산 심의를 통해 차등지원한다.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은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예술장르로 승화시킨 신규 창작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년도 말에 쇼케이스를 통한 중간발표회를, 2차년도에 완성된 콘텐츠의 공개 발표회를 갖는다.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은 거주형 2개 사업, 비거주형 3개 사업을 선정한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5개 단체를 선정한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전

문·기초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원로·전문·신진)의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은 만19~39세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등을 지원한다.

공모방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민간단체가 공공 공연장과 1:1 협약을 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선발한 후 공연장과 매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공 공연장은 22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해 문화재단으로 제출하고, 공연예술단체는 공연장 우선순위를 적어 공모에 응하면 된다. 야외공연장지원사업은 통합공모로 1월에 접수를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2023년 1월 9일부터 19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7462, 7463, 74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무대에 선 '장애여성 이야기'



장애여성들이 '끌리다, 장애여성 이야기' 공연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

<실로암사람들 제공>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장애 여성배우 7명 무대

인권·복지현장 목소리 대변

(사)실로암사람들이 제 31회 하나된 소리 '끌리다, 장애여성 이야기(사진)' 공연을 21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지원하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문화로 표현해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무대에는 김미숙, 임은옥, 이지숙, 박정혜, 차

지숙, 서지혜, 최송아 등 장애를 가진 여성배우 7명이 올라 장애여성의 삶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진달래피네 극단,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병진, 실로암수화중창단, 라브리주간보호센터 난타팀도 함께한다.

이날 출연진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기회와 참여에서 차별받은 이들의 인생을 담은 연극을 선보인다.

장애 여성들이 각자가 사회의 주체가 돼 인권과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내·외적 상처를 치유하는 등 장애여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펼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672-778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